

6월의 기도

자녀들이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1. 조용기 총재 목사님께서 DCEM을 통해 복음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어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3.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마음에 악하고 무익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채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덕목들을 잘 갖추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아멘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기도로 나아가라

예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순복음교회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독일 사람인데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독일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 한인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통역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감동스러운 것은 이분이 루게릭병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셔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불신자인 친정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분의 가정에 새 집까지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중복음과 삼중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저에게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도 하지 못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곧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림,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2년 5월 인도네시아 세계기도대성회



지난 2012년 5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기도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인도네시아가 인구 2억 7천만명 중 87%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모슬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220개국에서 10만 기도 용사들이 모여 성대하게 치러진 성회였다. 테러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삼엄한 감시와 철물 보안에 힘써주었고, 대통령을 대신해 아궁 락소노(Agung Laksono) 전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성회는 인도네시아 교계 연합과 한국 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DCEM이 주관했다. 1984년 한국에서 열린 첫번째 성회 이후 28년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열린 2012세계

기도대성회는 한국의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전세계를 변화시켰듯이 다시 한 번 기도로 전 세계를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진행한 대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성회의 주강사로서 10만 관중의 환호 속에 강대상에 올라 '성령과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상대는 우리들이다. 사랑하는 사이는 대화를 끊임없이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7시간동안 인도네시아 전역과 세계가 동시에 기도 랠리를 펼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날 성회는 CBN 공영TV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방송되었고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 되어 성회에 참석하지 못한 수백만의 기도의 용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갔다.

2012년 세계기도대성회는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기도축제가 성령의 축제였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어드레 보다는 더 뜨거운 기도를 이어나가야 할 때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희망은 하늘에서부터 나온다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열왕기하 7장 3-8절)

1. 희망은 하늘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철첩이 둘러쌌습니다.

성이 포위를 당한 채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자 성안에는 비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팔리고 심지어 비둘기 똥도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신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 그러니 선지자 따위는 필요 없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목을 베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나귀의 머리가 비둘기 똥이 거금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으로 팔릴 것이니 그것도 한 달 후나 일 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 양식이 차고 넘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절망의 강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희망을 붙잡고 전진하라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 양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먹고 누린 사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실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실낱만한 희망이지만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자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붙잡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이 팔을 잡고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이 거기에 같이 팔을 잡고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사람이 행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니 나병 환자들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증폭시키시매 거대한 전차 바퀴의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천지를 진동하는 군인들의 함성으로 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녁을 지어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차 바퀴 소리가 들리고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만 간단히 서늘해져서 밥상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적진에 도착하니 적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어 놓은 밥을 배부르게 먹고 웃도 같이입고 금과 은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은 희망에 의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희망의 선포와 나병 환자들의 희망을 향한 행진이 상상을 초월한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을 모시는 장관은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관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양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성문으로 우르르 몰려나올 때,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밝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희망을 가지기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나의 추악을 청산하시고 나의 질병을 청산하시고 나의 저주와 가난을 청산하시고 나의 죽음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병환자와 같이 힘이 없고 보잘 것 없어도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행진해 주심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이반의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집: 조용기 목사님의 대륙별 해외성회 ⑥

북아메리카 (III)



▲ 1984 하와이



▲ 1989 캐나다 토론토



▲ 2003 미국 포틀랜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전한 생명의 말씀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가르침을 주었다. 조용기 목사가 선교 활동을 나선 북아메리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지만, 그 명성과 반대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국가라는 커다란 축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준 그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조용기 목사는 북아메리카로 선교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간결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이 다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했다.

1964년 미국 하나님의성회 본부측에서 교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조용기 목사의 참석을 요청하며 시작된 북아메리카 선교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당시 주머니에 100달러를 가지고 떠난 두달 간의 첫 미국 선교여행에서 조용기 목사는 가지고 간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우며 선교활동을 벌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조용기 목사의 피나는 노력으로 북아메리카에서 개최된 성회에는 매 성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세계적 복음전도사로서의 명성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

조용기 목사가 중요성을 강조한 금식기도, 성령운동, 방언을 신기하게 여긴 북아메리카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회 이후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직접 찾기도 하며 세계적 선교사인 조용기 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다. 1984년에는 북미캐나다선교회가 창립되어 조용기 목사의 북아메리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선교회 회원들은 조용기 목사가 성회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DCEM과 더불어 북미지역 성회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인 조용기 목사와 그의 해외성회를 전담하는 기구인 DCEM은 앞으로도 북아메리카 성도들을 위한 선교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머지않아 코로나19로 막힌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북아메리카로의 선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